

# 차익실현 나선 외국인... 삼성전자·하이닉스 50조 팔았다

반도체 중심 대형주 대규모 매도  
중동 영향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전문가들, '리밸런싱'으로 판단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역대급 매도세(월간 기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A자산운용사 주식 담당자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에도 외국인이 무더기 '팔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증시를 향하고 있어 급격한 조정은 없겠지만, 중동 지역의 불안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 나선 것을 보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운용사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이 다시 확산하자 주식펀드 운용에 대한 포지션을 '해지(위험 방어)'로 바꿀지 고심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외국인 '셀 코리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해지고 있어, 외국인의 차익실현이 끝나면 금융시장의 하단이 단단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셀 반도체' 외국인

중동 전쟁 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업종은 반도체다. 5, 6월에 가장 많이 판 종목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ChatGPT로 생성한 외국인 '셀코리아' 이미지.

다. 이 기간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24조4061억원을 순매도했고, 삼성전자도 24조4049억원어치 팔았다. 삼성전자주식도 1조2778억원어치 팔았다.

반도체 외에도 외국인 매도는 일부 대형주에 쏠렸다. 외국인은 현대모비스(3조1386억원), LG전자(2조790억원), 현대차(1조6621억원), LG이노텍(1조5012억원) 등도 1조원 이상 팔았다.

반도체 거품을 우려한 선제적인 대응일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도체 주식의 거대한 질주가 둔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수요 폭발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엄청난 이익 실적 성장이 최근의 주가 폭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8000~1만1000으로 제시하면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지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에서 10%가량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한편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들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친” 움직임이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적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도 최

근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한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성격이 짙다는데 무게를 실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매도는 액티브 펀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리밸런싱 성격이 강하다”며 “시장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구조적 자금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다른 국가로 사냥감을 찾아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 ◆ 한국 기초체력 탄탄, 외국인 언제든 올 수 있어

외국인이 한국증시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기초 체력만 놓고 보면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라 기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강한 이익 성장이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32%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승분의 대부분은 반도체 투톱에 쏠린다.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57조2000억원, 매출은 42% 불어난 133조원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

기 영업이익만 94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70%에 육박한다.

로이터는 지난달 “글로벌 펀드들이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AI 랠리를 주도하는 아시아 IT 기업들을 이익의 피난처로 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강력한 수출 회복세와 국제 지수 편입 호재가 겹치며 글로벌 자금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계 IB들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증권은 반도체 부문의 장기 이익 성장과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고려할 때 코스피가 단기기에 1만2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또한 코스피 목표치를 1만 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중동 분쟁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노출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장기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메모리 수급 부족이 내년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이 이미 내년 수요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VOO, ETF 최초 운용자산 1조달러 돌파

뱅크드 AI·美 증시 강세, 성장 견인  
낮은 비용, 장기 투자자·기관 선호

미국자산운용사뱅크드(Vanguard)의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VOO가 ETF 업계 최초로 운용자산(AUM) 1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증시 강세와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저비용 패시브 투자 확산이 맞물리며 글로벌 자금이 대형 인덱스 ETF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뱅크드 S&P500 ETF(VOO)는 최근 하루 동안 17억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며 총 운용자산 1조달러를 돌파했다. 단일 ETF가 운용자산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OO는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다. 2010년 출시 이후 꾸준한 자금 유입을 이

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 ETF인 S PDR S&P500 ETF(SPY)를 제치고 세계 최대 ETF 자리에 올랐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690억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AI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인덱스 ETF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VOO의 성장 배경에는 저렴한 운용보수도 자리하고 있다. VOO의 연간 운용보수는 0.03%로 경쟁 상품인 SPY(0.0945%)보다 크게 낮다. 업계에서는 장기 투자자와 기관 자금이 VOO를 선호하는 핵심 이유로 저비용 구조를 꼽는다.

토드 로젠블루스 TMX베타파이 리서치 책임자는 “투자자들이 AI 붐에 올라타기 위해 ETF를 미국 주식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VOO는 규모가 크고

비용이 저렴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피 등 초대형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도 대형 인덱스 ETF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요 지수의 신규 상장 종목 편입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여서 해당 기업들이 주요 지수에 편입될 경우 VOO와 같은 대형 패시브 펀드의 자동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금액 순위에서 VOO는 47억2823만달러로 10위에 올랐다. 같은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500 ETF(SPY)는 29억8753만달러로 16위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4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스타 슈 OKX 창립자,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컴투스홀딩스

## 코인원 품은 한투證, STO·RWA시장 공략

OKX벤처스와 지분 약 20%씩 확보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투자에 나선 배경을 공개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공략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FI)가 아니라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투자(STO)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토큰증권(STO)과 실물자산토큰화(RWA) 등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스타 슈(STAR XU) OKX 최고경영자가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투자로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코인원 구조 일부와 신주를 각각 약 20%씩 취득하며 공동 3대 주주에 올랐다.

/허정윤 기자

## 예탁원 “전자등록자산 1경1065조 기록”

전자증권 도입 7년 만에 자산 2배 ↑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전자등록 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경원을 돌파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7년이 채 되지 않아 자산 규모가 두 배 이상 불어나며 국내 자본시장의 외형 성장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전자등록기관으로서 관리 중인 전자등록자산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경1065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京)’은 조(兆)의 1만 배에 해당하는 단위다. 숫자로는 1 뒤에 0이 16개 붙는 규모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전자등록자산이 1경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등록자산은 주식과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단기사채 등 자본시장법상 대부분의 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장주식과 채권의 시가총액은 물론 펀드와 각종 금융투자상품 규모까지 포함해 국내 자본시장의 총량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평가된다.

자산별로는 상장주식이 659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단기금융투자상품 6622조원, 상장채권 2665조원, 집합투자증권 1288조원 순이었다.

이번 1경원 돌파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진 결과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2019년 9월 말 전자등록자산 규모는 4780조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6110조원, 2023년 말 6346조원, 지난해 말 8589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 처음으로 1경원을 넘어섰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자산 규모 급증의 배경으로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증시 호황을 꼽았다.

/허정윤 기자

## 삼성자산운용, KODEX 200 순자산 31조

국내 최초·최대 규모 ETF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출발점이었다 KODEX 200이 또 한 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KODEX 200은 국내 증시 성장과 함께 몸집을 키우며 순자산 3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의 순자산이 30조8249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순자산 10조원을 넘어

서고, 올해 4월 순자산 2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30조원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KODEX 200 ETF는 지난 2002년 10월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한 국내 최초의 ETF이자 현재 최대 규모의 ETF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신하은 기자